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13시 59분

2023 목포박물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프로그램 접수신청

2023.03.22 조회수 86 등록자 이주희

목포박물관, 5년 연속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 올해 상주작가 조기호 시인과 프로그램 운영
- 상주작가와 함께 문학의 도시 면모 이어나가

목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학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역 문인이 문학관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대상 문학강좌 진행과 문학규례 이터로서 활동하는 문학관 활성화 사업이다. 목포박물관은 사업비 2천4백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목포박물관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올해 상주작가에 조기호 시인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기호 시인은 1984년 광주일보 및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시부문에 당선된 지역 중진 작가다.

저서로는 동시집 '숨은그림찾기', '반쪽이라는 말', '뽕 뚫어주고 싶다', 시집 '이런 사랑' 등이 있다.

목포박물관은 조기호 시인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문학관 나들이', '동심으로 동안으로', '동시야 같이 놀자!', '시의 향기를 나누는 명시 산책' 등의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인대상 동시창작반인 '동심으로 동안으로'는 일반시민 대상 동시 쓰기 프로그램이고 '동시야 같이 놀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글쓰기 및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이다.

또한, 시의 향기를 나누는 명시 산책'은 일반인 대상, 명시 감상과 낭송을 통해 시를 즐기고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독서동아리이다.

상주작가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각각 프로그램은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교육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목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며, 문의는 목포박물관(061-270-8400)으로 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 목포박물관 상주 작가로 활동하게 된 조기호 작가가 문학관과 지역민 사이를 잇는 가교가 되어 문학이 지역민의 삶을 치유하고 지지하는 문학의 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화면 캡처 2023-03-22 125512.jpg (32 hit/ 110.2 KB) ↓

미리보기

목록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제15회 목포문학상 공모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